#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새 수목드라마 '산부인과' 장 서 희

표독함 벗고 당차고 강인한 여의사로

## 그녀의 변신이 궁금하다

"두차례 수술실 체험
엄숙하고 숙연했다
병원 드라마 틀 깨고
재미·감동 보여줄 것"

"저한테는 '아내의 유혹'이 '막장'이 아니었어요. 제겐 무척 소중한 작품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산부인과 의사 역할을 통해 이미지 변신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아내의 유혹'에서 치밀한 복수극을 보여준 장서희(38)는 27일 SBS 새 수목드라마 '산부인과'의 제작발표회에서 산부인과 의사 서혜영 역으로 다른 연기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내달 3일 밤 10시 첫선을 보이는 SBS의 새 수목극 '산부인과'(극본 최희라, 연출 이현직 · 최영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벌어지는 선택과 사랑, 성장을 다루는 '메디컬+인생드라마'를 표방한 작품이다.

드라마는 주인공들 간의 사랑이야기 외에도 매회마다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에피소드 2~3개를 통해 웃음과 감동을 전한다.

장서희는 당차고 강인하면서도 깔끔한 여의사 역을 소화해내고자 머리도 짧게 잘랐다.

연말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고 연초인 2일부터 곧바로 '산부인과' 촬영에 임했다는 그는 "시상식 뒤풀이 등으로 무척 피곤한 상황이었는데도 견학차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정신이 확 들었다"며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그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엄숙하고 숙연한 그 자리에서 어머니 생각도 났고, 얼른 나도 짝을 만나서 아기를 낳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남편에게 꼭 아기 낳는 장면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감독님은 내가 33살인 줄 알고 캐스팅했다가 나이가 많은 것을 알고 실망하셨다고 했다"고 농담을 건네며 "그만큼 내가 이 산부인과 의사 역을 맡게 된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고 웃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의사 연기가 어색할 것 같은데 그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잘한다고 자문해주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셨다"며 "두 번이나 실제 수술을 견학해 실제 의사들 모습을 본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서희는 "의학 용어가 어렵고 머리 아파 의사가 안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래도 역할로 의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배우가 된 것은 행운"이라고 배역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메디컬 드라마라고 해서 너무 엄숙하거나 딱딱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미있는 장면도 나오고,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는 내용도 다뤄지는 등 틀에 박힌 병원 드라마의 모습을 깨 재미와 감동을 함께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라마를 촬영하며 산부인과의사회 '피임 · 생리 캠페인' 홍보대사로도 나선 그는 "미혼모가 병원에 갈 때 돈이 무척 많이 든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다"며 "이 드라마를 통해 관련 복지가 나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전했다. /연합뉴스

### '부자의 탄생' 주인공에 이보영·지현우 캐스팅

배우 이보영과 지현우가 KBS 2TV '부자의 탄생'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고 이보영의 소속사 BOF가 26일 밝혔다.

'공부의 신' 후속으로 3월1일 첫선을 보일 '부자의 탄생'은 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표인 재벌가 상속녀와 자신의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믿는 한 남자가 만나 성공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이야기다.

이보영은 오성그룹의 상속녀 이신미 역을 맡아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이신미는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려고 고군분투한다.

19살 차이 연상녀-연하남의 색다른 로맨스

## 그녀의 사랑이 궁금하다

'바람불어 좋은 날' 김미숙·이현진

실제로는 26살 차이가 나는 탤런트 김미숙(51)과 이현진(25)이 드라마에서 19살 차이가 나는 연상녀-연하남 커플로 만난다.

두 사람은 내달 1일 첫선을 보이는 KBS 1TV 새 일일극 '바람 불어 좋은 날'에서 고등학교 사제지간으로 만나 훗날 연인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커플을 연기한다.

김미숙은 "내가 어쩌다보니 연하남 전문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감독님의 말에 힘입어 출연을 하기는 했는데 걱정이 태산"이라며 웃었다. 그는 "정말 숙제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겠다"며 "부디 이들의 사랑이 세상에서 이해가 되는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숙과 이현진은 이 드라마에 앞서 지난해 초 건대병원에서 각각 MBC '사랑해 울지마'와 SBS '가문의 영광'을 촬영하다 우연히 만나 처음 인사를 나눴다.

"제가 이번 역할을 받아들인 이유는 상대역이 현진 씨라는 것이 컸어요.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현진 씨가 나한테 달려와서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주제넘지만 선생님이 저의 이상형이십니다'라고 하길래 제가 당황해하면서 인사를 받았던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만난 후배가 이번에 상대역이라고 하니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현진(25)은 "김미숙 선배님이 저의 어머니와 동갑이시다"며 웃었다.

그는 "저의 어머니도 연세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김미숙 선배님은 연기자이시다 보니 더 젊어보이신다"며 "영화 '세븐 데이즈'에서 선배님을 보며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지적일 수 있구나' 감탄했는데 이번에 상대역을 맡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야, 너 내 친구랑 연애하는 셈이네?'라고 하셨어요.(웃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고, 김미숙 선생님과 연기하는 게 설레고 신기합니다. 앞으로 눈에 불을 켜고 연기를 하려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19살의 나이 차는 부담스럽다.

"실제로는 두 살 연상녀를 사귀어 본 적이 있고, 5~6살 연상까지는 사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19살은 너무 차이가 크죠.(웃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극중 두 사람이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보다는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플라토닉한 사랑의 성격이 커서 조금은 다르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고교시절 사제지간이었던 두 사람은 세월이 흘러 유치원을 경영하는 미망인과 발명왕을 꿈꾸는 엉뚱한 청년으로 만난다. /연합뉴스